

愚岑 張泰慶 生涯 研究

박상영, 이정화, 권오민, 한창현,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문헌연구센터

A Study on the life of WooJam, Jang-Taegyung

Sang-Young Park, Jung-Hwa Lee, Oh-Min Kwon, Chang-Hyun Han, Sang-Woo Ahn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With the discovery of WooJam JabJeo, Jang-Taegyung[1809~1887] was highlighted as a noted doctor who won fame in the neighborhood of Gwangju, but with 'WoodJam Mango' seeing the light of day, this study was able to confirm the appearance of a literary man enjoying a reputation enough to sway literary circles with his writing of poems.

It's possible to confirm his past related to medical service only until age of 42, which is because description in 『WooJam JabJeo』 came to a halt there. The situation is that the contents of 'WooJam Mango' started from age of 46 and were carried on even until after his death by his followers. Therefore, there exists a very intense impression that he might have put a focus on the life as a literary man ever after his mid-40s. and considering that he breathed his last at the age of 79, it's not difficult for us to estimate that his life was predominantly a series of literary activities rather than a health care provider.

The place names appearing in 『WooJam JabJeo』 and 『WooJam Mango』 are limited to today's Jeonlanam-do, and this researcher would say that the through-composed poems, which sang of the beauty of Gwangju area scenery are the works, deserve to get a spotlight in local history even today.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could prove that WooJam is a flawless figure enough to represent Gwangju and Jeonlanam-do as a health care provider and a literary person as well.

Key words : 『WooJam JabJeo(愚岑雜著)』, 『WooJam Mango(愚岑謄稿)』, Jang-Taegyung, Health care provider, Literary person, Gwangju, Jeonlanam-do

I. 서론

본고는 최근 발굴되어 조명을 받고 있는 湖南의 名醫 愚岑 張泰慶(1809~1887)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연보를 작성하여 학계에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우잠에 대한 연구는 산청한의학박물관에서 『愚岑雜著』라는 서적이 발견되면서부터이다. 『우잠잡저』는 일반 한의서와는 달리 의안 위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책 시작부터 賦 형태의 서술이 보이며 처방의 내용을 詩로 작성하는 등 문인적 취향을 다분히 보인 특기할만한 한의학 서적이다. 또한 의안의 내용이 몹시 상세할 뿐 아니라 오늘날의 임상 적용 가능성

이 큰 자료들이 풍부하여 주목을 끈 바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고의서산책』¹⁾과 『한의학고전명저총서DB』의 해제²⁾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우잠에 대한 본격적인 첫 연구는 홍세영과 안상우의 연구부터이다.³⁾ 이 글에서는 『愚岑雜著』 말미에 있는 「張仁禮識⁵⁾」라는 작품에 “聖上即位元年己酉仲秋, 沃城後人愚⁶⁾⁷⁾生取之.[성상께서 즉위하신 원년인 기유년(1849)

1) 안상우, 고의서산책370 『愚岑雜著②』, 민족의학신문 656호.
 2) 한국한의학연구원, 『우잠잡저』「해제」, 한의고전명저총서DB <<http://jisik.kiom.re.kr>>
 3) 홍세영, 안상우, 「『우잠잡저』에 관한 일고」, 『호남학연구』 제4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9년 12월, pp. 277-323.
 4) : 본고에서는 원문에서 판독이 불가능한 글자를 이 기호로 표시하였다.
 5) 張泰慶, 『愚岑雜著』 「張仁禮識」.
 6) 愚 : 원래는 이 자리에 '定性'이라는 2글자가 있었으나, 지우고 '愚'

접수 ▶ 2011년 9월 6일 수정 ▶ 2011년 9월 6일 채택 ▶ 2011년 9월 26일
 교신저자 ▶ 안상우, 대전 유성구 전민동 엑스포로 483 한국한의학연구원
 Tel : 042-868-9442 E-mail : answer@kiom.re.kr

가을이 한창인 때, 沃城 후인 愚岑이라는 서생이 채택하였다.]라는 글귀에 보이는 ‘沃城後人愚岑’이라는 말에서 우잠이 沃溝 張氏일 것이라 추측하여 추적하였고 그 결과 『沃溝張氏世譜』에서 우잠에 대한 적지 않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다.

위 연구에서 『愚岑雜著』에 長城, 順天 등의 지명이 나오며 「祝文」에 “朝鮮國, 全羅左道, 光州牧, 某面某村居, 幼學某敢”이라는 언표가 『옥구장씨세보』의 정황과 일치함을 보여 주어 광주를 일대로 활동한 의인임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愚岑雜著』에는 伏虎村(전남 보성군에 있는 山陽의 옛 명칭), 月坪(전남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낙성리), 廣淸里(전라남도 順天市 住岩面 소재), 興陽(전라남도 고흥군에 있는 지역 이름), 장성읍 월호리 등의 지역명이 보이며, 松廣寺, 仙庵寺 등 전라남도의 사찰이 보인다. 후술할 서적인 『愚岑謾稿』에도 광주를 중심으로, 朗州(전라남도 靈巖郡의 고려 시대 이름), 鳳棲樓(전라도 綾城縣 객관 동쪽에 있던 누각으로, 현재 화순군 능성면 관영리에 있음), 暎碧亭(전라도 綾城縣 演珠山 밑에 있는 정자), 海陽(전라도의 옛 이름), 鶴島(전라도 珍島郡 서쪽 바다에 있는 섬), 烏城(和順의 옛 이름) 등이 보이며 전체적인 공간적 배경이 전라남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 책에서 특기할 것은, 「瑞石山」「壯元峯」「羅王胎峯」「金鑛山」「香爐峯」「啼鳳山」「舍人峯」「持平峰」「極樂江」「鏡湖水」「粉積山雪景」「柳林藪秋風」 등 광주 인근의 풍광의 아름다움을 읊은 일련의 시를 지어서 자신이 살던 지역에 대한 애착을 두드러지게 표현해 내었다는 점이다. 이 지역들이 바로 우잠이 생활하고 병을 고치고 글을 짓고 명성을 쌓았던 바로 그곳인 것이다.

II. 본론

『愚岑謾稿』 발굴 과정은 이러하다. 우리는 『우잠잡저』에서 보인 우잠의 문인적 취향을 미루어 남아 있는 문집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였다.⁸⁾ 그 결과 고려대학교에 그의 문집이 소장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잠잡저』라는 책은 필사될 당시 의학적 내용 이외에 우잠이 남긴 문학 작품 등이 책 말미에 일부 필사되어 있다. 이로 인해 「愚岑序」, 「愚岑詩三首」, 「祝文」 등의 글이 약간씩 제목을 달리한 채 『우잠만고』에 거의 그대로 전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두 서적이 동일인의 저작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⁹⁾ 『우잠만고』는 고려대 소장 유일본이며 현재까지 異本

이 발견되지 않았다. 『沃溝張氏世譜』에 遺稿 1권이 전한다고 하였는데, 유고는 이 『우잠만고』와 깊은 관련이 있는 듯하다. 다만, 유고의 형태가 현재와 같은 내용을 담았지는 의문이다. 현존하는 『우잠만고』에는 우잠의 작품이 아닌 작품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책의 말미에 우잠 사후에 부기된 글들까지 기재되어 있다. 게다가 「附 愚岑翁賜國者會韻」라는 작품 아래의 주석에는 “歲庚辰春, 翁蒙國者賜恩. 故燕飲賦詩, 而諸人和韻, 略附於後.[정진년(1880) 봄, 우잠 어른이 국기회에 선발되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잔치를 열어 술 마시며 시를 지었다. 그 시에 화운한 여러 사람의 시는 간략하나마 이곳에 붙여둔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翁詩在集稿中[우잠 어른의 시는 문집 가운데 있고]”라는 내용으로 보아 현존하는 『우잠만고』 이전에 형성된 문집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附 愚岑翁賜國者會韻」가 1880년, 우잠의 나이 72세에 지어졌기 때문에 우잠은 살아생전인 그의 만년에 이미 자신의 문집을 수습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잠만고』는 1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앞에서부터 시기별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듯하지만 모든 작품이 시대순으로 배열된 것 같지는 않다. 또한 詩와 文이 나뉘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초고의 형태를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작품 가운데 詩는 성리학적 求道를 읊은 것에서부터 경물을 읊은 것, 자신의 감회를 읊은 것, 축수하거나 조문한 것 등 몇 개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특히 光州牧使였던 趙雲漢¹⁰⁾이 기방을 점검할 때 지은 「趙

로 고쳐 썼다.

7) □ : 관독이 어려우나, 그의 호가 ‘愚岑’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岑’으로 보고 번역하였다.

8) 『우잠잡저』에 보이는 대표적인 처방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淸陽三化湯 淸양삼화탕

升麻黃芪歸身念 승마 황기 당귀신 2돈

陽明引經乾葛望 양명의 인경약인 같근 1돈 5푼

蘇木生甘五分伏 소목 생감초 각 5푼을 넣고

紅桂酒粕二分興 홍화 계지 황백(술로 법제한다) 2푼을 써라

大黃朴枳羌活加 대황 후박 지실 강활을 더하고

合和灸甘一旬應 구운 감초 1돈을 합하여서 응하라

三盞酒煎一盞許 술 3잔에 넣어 1잔이 될 때까지 달인 뒤

三次分飲何須忙 3차례에 나누어 먹일지니 여쭙 조금씩 먹이겠는가

9) 『우잠만고』에 보이는 세 작품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愚岑自序」, 「又題愚岑韻【二首並五律一首】」, 「祭樂文」.

10) 『承政院日記』에 따르면, 그는 고종(高宗) 1년(1864) 4월 12일 장원서 참봉(掌院署參奉)에, 2년 6월 22일 종묘서 직장(宗廟署直長)에, 4년 6월 27일 공조 정랑(工曹正郎)에, 4년 7월 21일 영산 현감(靈山縣監)에, 7년 3월 20일 배천 군수(白川郡守)에, 7년 11월 17일 서흥 부사(瑞興府使)에, 9년 8월 25일 광주 목사(光州牧使)에, 10년 12월 27일 장악원 정(掌樂院正)에, 19년 1월 18일 부호군(副護軍)에, 19년 4월 17일 형조 참의(刑曹參議)에, 21년 5월 9일 돈녕부 도정(敦寧府都正)에, 21년 5월 11일 부호

侯【雲漢】小宴嘲衆妓라는 작품과 瓊鶴과 鳳仙이라는 두 기생에게 준 시들, 그리고 스님들과 나눈 여러 시들을 통해 유학의 근본주의에 묶여 살지 않은 유연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의학과 생애에 관련하여 주목되는 몇몇 작품을 꼽자면 자신의 호에 대한 해설을 담은 서문과 시¹¹⁾, 약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글¹²⁾, 용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글¹³⁾, 김후【윤현이다】에게 보내는 편지¹⁴⁾, 자오와에 대한 기문¹⁵⁾, 병석에서 읊은 시¹⁶⁾ 등 의학과 관련하여 그의 견해를 알 수 있는 글과 병고에 시달린 감회를 이야기한 글이 있다. 또한 문인으로서의 당대 위상을 알게 해주는 시도 있으며, 많은 시가 주는 대상이 있는 시이기 때문에 당시 교유했던 이들에 대해 추적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우잠이라는 인물에 대한 개괄을 위해서는 우선 『옥구장씨세보』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泰慶

初諱는 七慶이고 자는 子華, 호는 愚岑이다. 壽職으로 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行 龍驤衛護軍 兼 五衛將에 제수되었으며 三世에 추승되어 이름과 행적을 세상에 드러냈다. 일찍이 柳林寺에서 노닐다가 ‘草埋幽逕跡 花守古庵塵’이라는 구절을 남겼는데 일족의 형이던 진사 晦窩공이 감탄하기를 “이 시는 唐詩의 격조를 지녔다”라고 하였다. 유고가 1권 전한다. 『光山誌』에 실려 있다. 純廟 기사년 생이며 고종 정해 11월 4일에 졸하였으니 79壽를 누렸다. 묘는 개장하여 孝池面의 所台里 成赤洞 甲坐에 있다. 貞夫人 草溪 鄭氏의 부친은 仁基이다. 기사년(1809) 생이며 정유년(1837, 29세)에 졸하였다. 아들 하나를 낳았다. 후처인 정부인 昌寧 曹氏의 부친은 光昊¹⁷⁾이다. 무인년(1818)생으로 신축년(1901)에 84세로 졸하였다.¹⁸⁾

이상의 기록에서 우잠에 대한 적지 않은 정보가 확인된다. 초휘인 七慶은 『우잠만고』에서도 2회 확인되는데, 「與金侯【胤鉉】書」¹⁹⁾과 「與金參奉【羽休】書【辛巳】」²⁰⁾에서이다. 『옥구장씨세보』에서는 호를 ‘우잠’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그의 문집에 남아 있는 「愚岑自序」에 근거하자면 우잠 외에 ‘定性齋’·‘敬菴’이라는 호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이중 ‘정성재’는 젊은 시절에 썼던 것이며 ‘경암’은 중년에 사용했던 것이라 한다. 이 가운데 ‘경암’과 ‘우잠’이라는 호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그 의미를 전하고 있다. 「自題敬庵韻」「又題愚岑韻」²²⁾이라는 작품이 그것인데, 『우잠만고』를 통해 볼 때 두 시는 창작시기가 같은 때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

우잠잡지』에 松岳 沈宜菴이 「又題愚岑韻」에 화운한 시가 보이는데²³⁾ 이곳에 위 「又題愚岑韻」 시가 1856년에 창작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우잠만고』와 『우잠잡지』의 정황으로 볼 때 「愚岑自序」(혹은 「愚岑序」)도 이 즈음 창작된 것으로 보

군(副護軍)에 임명되었다.

- 11) 張泰慶, 『愚岑謾稿』 「愚岑自序」 「自題敬庵韻」 「又題愚岑韻」 등 참조.
- 12) 위와 같은 책, 「祭藥文」 참조.
- 13) 위와 같은 책, 「祭龍神文」 참조.
- 14) 위와 같은 책, 「與金侯【胤鉉】書」 참조.
- 15) 위와 같은 책, 「自娛窩記」 참조.
- 16) 위와 같은 책, 「病中有感」「病中又寄松岳」 등 다수의 시에서 자신의 병든 상황을 읊고 있다.
- 17) 1903년 족보에는 ‘光’이 아닌 ‘廣’으로 되어 있다.
- 18) 張鳳基 編, 『沃溝張氏世譜』, 1936. “泰慶 初諱七慶字子華號愚岑. 壽職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行龍驤衛護軍 兼五衛將 追崇三世 名行著世 嘗遊柳林寺古址 有草埋幽逕跡 花守古庵塵之句 族兄進士晦窩公 歎賞曰 此唐詩調云 有遺稿一卷 載光山邑誌. 純廟己巳生 高宗丁亥十一月四日卒 壽七十九. 墓改葬孝池面所台里成赤洞甲坐. 配贈貞夫人草溪鄭氏 父仁基 己巳生丁亥三月十二日卒 生一男. 墓同所卯坐有碍. 后配貞夫人昌寧曹氏 父光昊 戊寅生辛丑六月二十五日卒. 壽八十四.”
- 19) 張泰慶, 『愚岑謾稿』 「與金侯【胤鉉】書」 “七慶 山野病夫, 蟄在窮巷, 嚙啜自憐於鄙, 爲幸. 而日內兒孫輩痘症, 尙爾繫危, 悶然曷喻? 恐晚旬旬頌賀之日, 崇照.[저는 산야(山野)의 병든 몸으로 누추한 동네에 집거하면서 귀 막고 입 막은 채 스스로의 비루함을 안타까워하며 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집안 아이들이 마마에 걸려 지금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니, 불쌍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송축하는 날에 늦을가 걱정입니다. 살펴주십시오.]”
- 20) 위와 같은 책, 「與金參奉【羽休】書【辛巳】」 “積歲阻拜, 恒庸瞻悵, 溱祝之忱, 無日不勤. 適因金生眞煥, 槩悉小多, 而親癘姑未允偏枯, 不勝眞慮, 遠祝不日斯洗之域. 七慶酸味懶散, 所得只是鬢霜, 而料襟去年正朝, 猥蒙天恩, 秩參玉署, 誠不勝惶感之私.[몇 년 동안 뵈지 못해 항상 당신을 생각하면서 슬퍼합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하루라도 절실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마침 김진환(金眞煥) 군을 통해 당신의 사정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병환이 편고를 피할 수 없다 하니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멀리서나마 빠른 시일 안에 씻은 듯이 쾌차하시길 빕니다. 저는 고생스러움에 게으르고 방만하여 얻은 것이라고는 허영계 쉼 귀뿔머리뿔입니다. 그런데 뜻밖에 지난해 정월 초하루에 외람되게 성상의 은혜를 입어 관작(官爵)을 받았으니, 참으로 황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21) 위와 같은 책, 「愚岑自序」 “述夫吾子妙年定性齋云, 以其廣胖充塞也. 中年改以敬菴, 亦是庸玉汝成矣. 今復以愚者, 正是覃思無聊, 徒切齊物之心, 而業薦偏門, 恰滿五十, 泰然求專不虞, 而不念舊惡, 怨是用稱, 是非吾子之愚耶?[당신께서 젊은 시절에 붙이신 ‘정성재(定性齋)’는 심광채반하여 온몸에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년에 ‘경암(敬菴)’이라 바꾼 것은 또한 당신을 옥처럼 같고 닦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다시 ‘어리석음【愚】’으로 바꾼 것은 생각이 깊어져 만물을 차별 없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마음만 절실하고 일삼던 것이 열길로 새다가 거의 50세에 이르러 태연하게 오롯하기를 구하여 근심하지 않고, 옛 악함을 염두에 두지 않아 원망이 드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어리석음이 아니겠습니까.]”
- 22) 위와 같은 책, 「自題敬庵韻」「又題愚岑韻」 참조.
- 23) 張泰慶, 『愚岑雜著』 「敬和愚岑原韻三首」 “歲在丙辰陽月日, 偶有所感, 妄綴荒蕪之語, 而兼搆短律, 以寓鄙意, 不想海南藍田崔山林直夫, 適來見之, 翌年春二月, 次給故不顧猥濫, 而受以并錄.[병진년(1856) 음력 10월의 어느 날에 우연히 느낀 것이 있어서 망령되게 황잡한 말을 끄적거리고 아울러 짧은 읊시로 엮어다가 나의 뜻을 담았더니만, 생각지도 않게 해남 남진의 산림 최직부가 때 마침 와서 보고는 다음해 봄 2월에 이 시에 차운을 주므로 외람됨도 모르고 받아다가 함께 기록해 둔다.]”

이다. 1856년에 그의 나이 48세이므로 40대 전후부터 이미愚峯이라는 호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柳林寺에서 노닐면서 지었다는 시도 『우잠만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端陽詩社會于柳林」라는 시 아래에 한 수를 더 짓고 「又」라는 제목을 달아놓은 시이다. 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看物遊佳日 파스한 날 만물을 구경하며 유람하니
艾榴各率眞 썩이며 석류가 각각 제 본성대로 자라네
草埋幽徑跡 풀은 고요한 길의 자취를 덮고
花守古庵塵 꽃은 옛 사찰의 먼지를 간직하고 있네.
醉倒當添畫 술 취해 쓰러지니 그림으로 그려내도 되겠고
詩成妙入神 완성된 시는 오묘해 입신의 경지에 드는 구나.
才疎多病客 재주 없고 병 많은 나
恐負意中人 마음속의 벗을 저버릴까 두렵구나.

위 시에 대한 설명은 우잠의 5촌 조카가 쓴 「附 愚峯翁賜國者會韻」²⁴⁾와 「附 哀詞」²⁵⁾에 잘 나타나 있다. 시는 인적이 드문 사찰 주변의 경관을 묘사하고 있는데 인위적인 것이 배제되어 있어 그 속에 들어간 사람마저 풍경이 되고 지어진 시는 입신의 경지에 든다는 내용이다. 썩이나 석류가 제 본성대로 자라나듯 술 마셔서 취하여 놓고 입신의 경지에 드는 시를 짓는 것은 곧 우잠의 본성일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많은 이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고 죽어 가던 이들도 많이 살려낸 장본인이지만 4년 가량 약으로 목숨을 이어갈 정도로 몸이 아팠다는 사실이다.²⁶⁾ 특히 말년의 작품으로 보이는 몇몇 시에는 반복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비록 쇠약해진 노년기를 보냈지만, 그는 말년에 壽職을 제수받았다. 슬하에 아들 셋이 있었으며²⁷⁾ 『옥구장씨세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잠잡저』를 통해 딸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⁸⁾

『우잠잡저』와 『우잠만고』에는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초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옥구장씨세보』와 함께 자료를 조합해보면 그의 생애를 어느 정도 재구성하여 연보를 작성할 수 있다.

특기할 것은 그가 의학에 투신한 20세부터 42세까지는 『우잠잡저』로서만 삶의 추적이 가능하고, 그 이후는 거의 『우잠만고』에만 나타나거나 두 책에 모두 나타나지만 문학작품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이를 통해 보자면 특히 40세 이전에 직업활동을 왕성하게 하였으며 4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당시의 문단을 뒤흔들 정도²⁹⁾로 창작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의 연보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24) 張泰慶, 『愚峯謾稿』 「附 愚峯翁賜國者會韻」, “嘗與翁遊柳林寺舊址, 作懷古詩, 至 ‘艸埋幽徑蹟, 花守古庵塵’ 之句, 擊節嘆賞, 謂 ‘合唐人詞格, 吾爲君當退軍三舍. 翁之造詣, 蓋可知.[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께서 문단을 주도하면서 압도하실 때에 다른 사람이 지은 시에 대해서 거의 인정하지 않으셨다. 한번은 우잠 어른과 유림사(柳林寺) 옛 터에서 노닐실 때에 우잠 어른이 옛 일을 회고하는 시를 지으셨는데, ‘풀은 고요한 길의 자취를 덮고 꽃은 옛 사찰의 먼지를 간직하고 있네.’ 라는 구절에 이르자 아버지께서 지팡이를 치며 감탄하면서 ‘당나라 시인의 품격과 같으니 내가 그대를 위해 마땅히 군대를 90리 뒤로 물러야겠네.’ 하셨다. 이로써 우잠 어른이 도달한 경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25) 위와 같은 책, 「附 哀詞」. 이 글은 우잠의 사후인 1887년 11월에 여러 사람이 지은 것인데, 첫 수는 5촌 조카인 진사 錫愚가 지었다. 이 시에는 우잠이 유학자적 면모를 갖추면서 직업에 투신한 모습과 당대의 문단을 흔들었던 우잠의 면모가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吾門尊孝德 우리 가문의 존경 받는 원로
遐壽八十耆 높은 연세, 여든이시지.
孝悌傳家法 효성과 공손, 가문의 낙수 받으시고
魁傑稟天姿 길출한 자태, 하늘로부터 받으셨네.
於嗜嗜喜歌 창포 김치 즐기듯 책을 탐독하셔서
手卷不暫離 손에서 잠시라도 놓지 않으셨지.
玄奧推河洛 현묘한 이치, 하도와 낙서를 연구하시고
素帙宛軒岐 평상시 보시던 책, 현원과 기백을 궁구하셨네.
普濟蓮莠筏 많은 사람 구제하니 보배로운 뗏목 같고
活佛大慈悲 살아있는 부처처럼 대자대비(大慈大悲) 실천하셨지.
聲律性所愛 시는 천성적으로 사랑하시어
往往吐天奇 종종 하늘도 놀랄 구절을 지으셨으니,
草埋花守句 ‘풀이 덮고 꽃이 간직한다.’는 구절은
先子所嘗推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셨네.
...중략...

憶昔二茅翁 생각해보면, 예전에 아버님과 우잠 어른은
文章動繡帷 문장으로 문단(文壇)을 흔드셨지.
山寺與鄉塾 산의 사찰에서나 마을 서당에서나
居處必相隨 거처하시면서 반드시 서로 어울리시고,
同研笑笑諠 함께 연구하시며 맘껏 우스개 소리도 하셨으니
篤好出天彝 돈독한 우애는 타고난 본성에서 나온 것이지.
...하략...

26) 위와 같은 책, 「自娛窩記」. 「暨吟疴三四載, 藥餌爲命, 問著詩文, 大都二三十篇 所諷誦, 亦數十秩, 秘其娛, 不道于人.[병으로 신음하던 3~4년 동안 약으로 목숨을 이어가면서 간간히 시와 문장을 지은 것이 대체로 2~30 편이고 울조리고 외운 것도 수십 절이 되는데 그 즐거움을 감추고 다른 이에게 말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책, 「贈禪師」 「道元」 序. “今垂命之年, 猥蒙爵祿, 至三品之列, 竊嘗憂焉. 矧夫風痺四載, 刀圭不得其靈, 長墊窮巷, 頓無世慮, 始知造物不欲令天下美事, 兼備於一夫之身. 遂以山雲水月爲生計, 以導引鍊氣, 自送餘年. 而仍念導引鍊氣, 舉天下所難者, 昔賢罕窺其闕域, 而我獨有何能, 曾不難焉?[지금 거의 세상을 떠날 나이가 되었는데, 외람되게 작복(爵祿)을 받아 3품의 반열에 이르렀으니, 마음속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중풍에 걸린 지 4년이 되었는데, 약물이 효험을 내지 못하여 곤궁한 동네에서 오래도록 침거하고 있어 세상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조물주가 천하의 훌륭한 일을 한 사람에게 겸비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마침내 자연 속에 노닐 것을 삶의 계획으로 삼고, 도인술(導引術)로 기(氣)를 연마하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도인술로 기(氣)를 연마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옛날 현인(賢人)들도 그 경계를 엿보았던 분이 드물었으니, 유독 저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어렵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위와 같은 책, 「與金侯胤鏞」 書. “七慶, 山野病夫, 蟄在窮巷, 龔啞自憐於鄙, 爲幸. 而日內兒孫輩痘症, 尙爾繫危, 悶然曷喻? 恐晚匍匐頌賀之日. 崇照.[저는 산야(山野)의 병든 몸으로 누추한 동네에 침거하면서 귀 막고 입 막은 채 스스로의 비루함을 안타까워하며 사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집안 아이들이 마마에 걸려 지금도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이니, 불쌍함을 어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송축하는 날에 늦을가 걱정입니다. 살피주십시오.]”

27) 이에 관해서는 홍세영, 안상우의 앞의 논문 참조.

28) 『愚峯雜著』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越明年夏四月, 余之三

표 1. 우잠연보

연도	연호	나이	내용	출처
1809	순조 9	1	沃溝 張氏이며, 부친은 張志淳이다.	『옥구장씨세보』
1827	순조 27	20	의업에 투신하다.	『우잠잡저』
1833	순조 33	25	3월, 광청리에서 상사병에 걸린 객점주모의 딸을 치료하다.	『우잠잡저』
1834	순조 34	26	4월, 서신(西神)을 앓는 자신의 3살 된 아들과 6살 된 딸을 치료하다.	『우잠잡저』
1836	현종 2	28	봄 2월, 졸도하여 인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입과 눈이 돌아가서 비뚤어진 21세 아녀자를 치료하다.	『우잠잡저』
1842	현종 8	34	가을 7월, 存問納上 때에 趙氏의 30세 된 子婦를 치료하다. ○같은 날 6살 난 딸을 잃은 趙氏의 41세 된 첩을 치료하였고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여 약을 새로 지어주었으나 주위의 반대로 첩이 약을 복용하지 않아 끝내 또 유산하다. ○9월, 조씨의 딸을 치료하다.	『우잠잡저』
1845	현종 11	37	6월, 장성을 월호리에서 목욕 후에 부어올라 온 몸과 얼굴이 모두 붓고 囊腎은 말발 만해진 8세 아이를 치료하다.	『우잠잡저』
1850	철종 1	42	9월, 죽을 병에 걸렸던 관노 李光孫을 치료하다.	『우잠잡저』
1854	철종 5	46	11월 26일. 어머님을 안장하다.(葬地는 광주 서림 뒤 기슭 만리당 봉우리 정상) 3일 전인 11월 23일에 거상 중에 있는 우잠에게 나비가 날아와 산으로 인도하는 기이한 꿈을 꾸 뒤 「夢錄」을 남기다. ○「先妣贈貞夫人李氏墓誌」를 짓다.	『우잠만고』
1856	철종 7	48	「自題敬庵韻」와 「又題愚峯韻」을 짓다.	『우잠만고』 /『우잠잡저』
1858	철종 9	50	「賀趙侯【雲漢】晬宴」을 짓다.	『우잠만고』
1859	철종 10	51	「祝文」을 짓다(『우잠만고』에는 「祭藥文」으로 되어 있음)	『우잠잡저』 /『우잠만고』
1870	고종 7/동치 9	61	「回甲韻」을 짓다.	『우잠만고』
1876	고종 13/광서 2	67	광주 목사 남호원을 대신하여 기우제를 올리며「祭龍神文」을 짓다.	『우잠만고』
1877	고종 14/광서 3	68	「哭族兄淑汝」를 짓다.	『우잠만고』
1878	고종 15/광서 4	69	「送金使君胤鉉移莅寧海」를 짓다	『우잠만고』
1880이전	고종 17/광서 6 이전	72이전	壽職으로 통정대부에 제수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護軍이 되다.	『우잠만고』
1880	고종 17/광서 6	72	봄, 국기회(國耆會)에 선발되다. ○「感祝賜禱」[문경현이 관작 받은 것을 감축함]를 짓다. ○感祝賜禱 庚辰春 문경현이 관작 받은 것을 감축하다 경진년(1880) 봄이다 ○「和酬鰲山家君賜禱韻 二首」[오산 문경현이 관작을 받다 시에 화답하여 수창함. 두 수.]를 짓다.	『우잠만고』
1881	고종 18/광서 7	73	「與金參奉【羽休】書」를 짓다	『우잠만고』
1885	고종 22/광서11	77	「和金侯【胤鉉】回甲韻」을 짓다	『우잠만고』
1886	고종 23/광서12	78	「送金侯【胤鉉】移莅龍城」을 짓다	『우잠만고』
1887전후	고종 24/광서 13 전후	79전후	「題進士趙兌潤【老瞻】慶宴」을 짓다	『우잠만고』
1887	고종 24/광서 13	79	「吾年」이라는 시를 짓다. ○11월 4일, 졸하다. 향년 79세.	『우잠만고』 /『옥구장씨세보』

III. 결론

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 『우잠잡저』의 발굴로 愚峯 張泰慶(1809~1887)은 광주 인근에서 이름을 떨친 명의로서의 성격이 부각되었으나, 『우잠만고』의 발굴을 통해 그가 시 창작으로 문단을 흔들 정도의 명성을 지니고 있었던 문인적인 면모를 확인

歲豚犬, 與六歲瓦璋, 共當西神, 以次善疫矣. (1834년) 여름 4월에 내 3살 된 아들과 6살 된 딸이 모두 서신(西神)을 앓았는데 진행이 순조로운 두역(痘疫)이었다.] 그리고 『우잠만고』의 「夢錄」에는 「璇兒」라는 이름이 2번 나온다. 이 작품은 우잠이 46세에 지은 것인데, 기사에는 “際璇兒之呼乳聲, 覺之乃一場大夢也. [선아(璇兒)가 젖 달라고 우는 소리에 깨어나니 한바탕 꿈이었다.]” “方下箸之時, 璇兒蹴而覺之. [음식을 먹으려 할 때에 선아(璇兒)가 발로 차서 잠이 깬다.]” 등 이 아이가 어린아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아이가 그의 늦둥이 딸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장태경, 『우잠만고』 「附 哀詞」. 憶昔二茅翁 생각해보면, 예전에 아버님과 우잠 어른은 文章動繡帷 문장으로 문단(文壇)을 흔드셨지.

2. 의료와 직접 관련된 그의 행적은 42세까지만 확인가능
한데, 이는 『우잠잡저』의 기술이 거기서 그치고 있기 때
문이다. 『우잠만고』의 내용은 46세부터 시작하여 그의
추종자들을 통해 그의 사후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
다. 때문에 40대 중반 이후는 문인으로서의 삶에 집중한
듯한 인상이 강한데, 그가 79수를 누렸다는 것을 감안하
면 의료인보다는 문인으로서의 삶이 압도적일 수도 있는
형국이다.
3. 『우잠잡저』 및 『우잠만고』에 보이는 지명들은 오늘날의
전라남도에 국한되어 있는데, 특히 광주 일대 풍광의 아
름다움을 노래한 연작시들은 地域史에서 오늘날에도 조
명을 받을 수 있는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4.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우잠이 의료인으로서, 그리
고 문인으로서 광주와 전라남도를 대표하기에 손색이 없
는 인물임을 입증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안상우, 고의서산책370 『愚岑雜著②』, 민족의학신문. 656
호.
2. 한국한의학연구원, 『우잠잡저』「해제」, 한의고전명저총서
DB <<http://jisik.kiom.re.kr>>
3. 홍세영, 안상우. 「『우잠잡저』에 관한 일고」, 『호남학연구』
제4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09 : 277-323.
4. 張泰慶. 『愚岑雜著』 (산청한의학박물관 소장)
5. 張泰慶. 『愚岑謾稿』 (고려대학교 소장)
6. 張鳳基 編. 『沃溝張氏世譜』. 1936.